

주님 안에서 사랑을 전하며 문안합니다.

2월은 제게 넘치는 감격과 위로가 있었던 축복의 한 달이었습니다. 그 동안 힘들고 고통이었던 시간이 마치 겨울철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저의 사역에도 물꼬가 트이며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과 동역에 감사 드립니다.

3월 한 달!

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.

샬롬

고광문 선교사 올림